

고린도후서 개관

1. 개요

고린도후서(2 Corinthians)는 고린도 교회의 회개와 회복, 그리고 바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와 목회의 진심을 담은 편지입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용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 헌금에 대한 권면,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흐르고 있습니다.

2. 저작 연대

- AD 55-56 년경,
 -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빌립보나 테살로니가)에서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나서 기록
 - 고린도전서 → '눈물의 편지'(전해지지 않음) → 고린도후서라는 흐름
-

3. 저자

- 사도 바울(Paul)
 -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받고, 회개한 교회를 향해 사랑과 격려로 답한 바울
 - 이 편지에는 목회자의 고뇌, 상처, 용서, 그리고 사명의 확신이 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

4. 기록 목적

- 고린도 교회가 회개한 것을 기쁨과 격려로 반응하고
- 아직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 사도직의 진정성과 고난 속 신실함을

변호하며

-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의 참여를 독려하고
- 사도의 삶이 화려한 것이 아닌 고난과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임을 강조

5. 단락 구분

구분	내용
1-2장	위로의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 대한 감사
3-7장	새 언약의 사역자 - 영광의 직분과 사도직의 진정성
8-9장	구제 헌금의 원리와 독려
10-13장	바울의 사도직 변호 - 약함 중의 강함, 사도의 표지

- 구조적으로는 목회적 감사 → 교리적 설명 → 실제적 요청 → 사도적 변호의 흐름입니다.

6. 중심 메시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12:9)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4:7)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노라.” (5:7)

고린도후서는 선언합니다: “복음 사역은 인간의 약함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낸다.”

7. 신학적 이슈

① 사도직의 본질

- 진정한 사도는 화려한 수사나 성공이 아니라, 고난과 자기 부인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임을 강조

② 새 언약의 영광

- 3 장: 모세 언약과 대비되는 새 언약의 영광이 소개됨 → 성령이 주시는 자유와 생명이 중심

③ 고난과 위로

-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처럼, 고난 속에서도 동행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주제

④ 연보와 청지기 정신

- 8-9 장에서 현금은 역지가 아닌 자원함,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체적 사명임을 강조

⑤ 약함과 능력의 역설

- 가장 깊은 교훈은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복음의 신비 → 십자가와 부활의 역설을 사도 자신의 삶으로 증거

8.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고린도후서 해석

① 은혜의 주권성과 사명의 부르심

- 사도직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위임에 근거한 것이며, 외적 성공이 아니라 충성과 진실함이 본질임을 개혁주의는 강조합니다.

② 언약신학과 새 언약의 영광

- 3 장의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 장의 성취로, 성령의 내주와 율법의 마음에 새김을 언약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③ 교회의 청지기 정신

- 연보는 단순한 모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공동체적 순종임을 강조합니다.

④ 십자가 중심의 사역관

- 개혁주의는 고린도후서를 통해 “성공주의 신학”을 거부하고, 십자가 신학과 고난 신학을 회복합니다.

⑤ 목회자의 정체성과 고난

- 바울은 목회자가 언약함 속에서, 눈물과 기도로 성도를 섬기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 개혁주의 전통은 “눈물의 목회”를 복음적 승리로 해석합니다.